



주간통일정세 2008-30(2008.07.21~07.27)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08-30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정치 관련

- 정전협정 55돌 경축행사 진행(5/27,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 정전협정 체결 55돌을 경축한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7일 전승기념탑, 4.25문화회관, 주체사상탑 광장 등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각 계층 근로자와 학생들도 평양 만수대언덕의 김일성 주석 동상을 찾아 참배했고, 당.정.군 간부들은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 전승기념탑을 찾아 헌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제성호 인권대사 내정자에 반감 표출(7/27,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7월 23일 성명을 통해 제 교수를 인권대사로 내정한 “망동을 단죄했다”면서 성명을 소개하고 제 교수에 대해 “동족 대결의 피눈이 되어 돌아친 극악한 민족반역자”라고 반감을 드러냄.
- 정전협정 55돌 “對美 승전” 강조(7/26, 통일신보; 7/26, 노동신문; 7/27,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단결된 인민의 정신력을 당할 자 세상에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날은 우리 공화국(북한)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타승하고 영원한 승리의 빛나는 폐지(페이- 통일신보도 “3년 간의 가열 치열한 전쟁은 조선의 승리로 끝났다”며 “조선 인민은...세계의 면전에서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를 여지없이 깨버렸다”고 주장
-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난(7/27,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정전협정 체결 55주년인 27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대결과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결이 격화되면 평화를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참화가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통일운동 발전을 가로막는 반공화국 대결정책’ 제목의 논평에서 실용주의에 기초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북남관계를 파괴하는 근본요인”으로 비난하며 현 정부가 이러한 대북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오늘의 파국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조선(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



● **北농민단체, 전원회의 개최(7/23, 평양방송)**

- 농민단체인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이 22일 평양에서 제5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평양방송이 23일 보도
- 강창욱 농근맹 위원장과 중앙위원, 중앙과 지방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근로단체 역할 강화 지시” 집행 문제를 논의했다고 방송은 소개,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결정서가 채택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나. 경제 관련

● **戰後 때처럼 경제건설 총돌격전 호소(7/27, 노동신문; 평양방송)**

- 노동신문은 27일 6.25전쟁 직후의 전후복구사업 때와 같이 “총돌격전”을 벌여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기여할 것을 전 주민에게 촉구
- 평양방송에 따르면 신문은 정전협정 체결 55주년(7.27)을 기념한 ‘당의 선군영도 따라 백전백승의 역사를 끝없이 빛내어 나가자’ 제목의 사설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놓으려는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 부동하다”며 “경제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

● **北 함경도·량강도 식량위기 상황(7/26,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웹사이트)**

- 북한의 함경도와 량강도가 현재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다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웹사이트 ‘릴리프웹’이 26일 발표
- 릴리프웹은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7월 22일 까지의 자료를 종합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인용, 최근 몇 달 간 북한의 식량안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함경북도, 량강도 전역과 함경남도 일부 지역을 극심한 식량 및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
- 보고서는 이들 지역이 불충분한 식량공급, 식생활 다양성 부족, 영양실조 증가, 전염병 가능성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8~9월에는 ‘인도주의적 긴급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
- 릴리프웹은 아울러 북한의 다른 지역이 현재 ‘만성적인 식량난’ 상황이지만 ‘극심한 식량 및 생계위기’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WFP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직원수를 10명에서 55명으로 늘리는 등 대북 구호 복구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국제사회 지원 후 北쌀값 안정세(7/25, 좋은벗들 소식지)**

- 북한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6월부터 잇따르면서 북한의 쌀과 옥수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5일 보도



- ‘오늘의 북한소식’ 제175호에서 “5월 말 황해남·북도를 중심으로 (kg당 북한돈) 4천원 이상 치솟았던 쌀값이 6월 들어 조금씩 떨어지더니 7월 들어 2천500원대에서 전역이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 평양, 함북 청진, 함남 함흥 등 북한의 주요 도시 시장의 쌀값은 7월 15일 기준, 2천500~2천700원이며 옥수수는 1천300~1천500원임.
- 소식지는 6월 러시아에서 지원한 3천t가량의 밀가루와 미국이 보낸 밀 3만7천t이 북한에 반입된 데 이어 외부로부터 식량 유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곡물 가격이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
- 한편 이모작 작물인 감자와 밀, 보리 수확이 이뤄지면서 식량난이 극심했던 황해남·북도의 사정은 다소 풀렸으나 척박한 지역인 강원도와 자강도의 식량난은 여전하다고 소식지는 언급

#### ● 먹는문제 풀리면 두려울 것 없어(7/24,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일심단결이 있고 강력한 군력(軍力)이 마련돼 있는 조건에서 먹는 문제만 풀리면 두려울 것이 없다”며 올해 농업증산을 거듭 독려, 조선중앙방송은 ‘농사를 잘 짓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라는 보도에서 “농사는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이다. 쌀이 있어야 공장도 돌릴 수 있고 강성대국도 건설할 수 있다”고 강조
- 방송은 “농사를 잘 지어 먹는 문제를 푸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지키고 사회주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첫째 가는 중대사”라며 “올해를 조국 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려면 “농사를 잘 지어 먹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
- 방송은 이어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오며, 사회주의가 자기의 우월성과 생명력을 발휘하게 하려면 농사를 잘 지어 먹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쌀은 곧 사회주의”라고 언급

#### ● 北태권도복, ‘백호’ 외국서도 호평(7/24, 조선신보)

- 북한에서 태권도가 대중화되면서 도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다른 나라 태권도 애호가와 수련생들에게도 도복을 제공하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조선태권도위원회 산하 태권도복공장은 연간 10만여벌의 도복을 생산, 특히 태권도복공장에서 만드는 도복에는 백호라는 상표가 달려 있고 “‘백호’ 태권도복은 이미 ITF와 세계의 태권도 애호가, 수련생들 속에서 확고히 공인된 도복으로 호평받고 있다”고 조선신보는 주장
- \* 북한 도복의 모양은 남한과 차이가 나는데, 상·하복에 모두 ‘ITF’ (국제태권도연맹)라는 글씨가 쓰여 있고 사범들이 입는 도복에는 아무 표시가 없는 선수복과 달리 상의 어깨부터 손목까지 검은 선이 그어져 있음.



- **北, 과학기술분야 남남협력 실현해야(7/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발전도상나라들이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칙에서 협력과 교류를 적극 발전시킨다면 제국주의자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산설비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이날 ‘협력과 교류의 강화는 새 세기 발전의 절실한 요구’ 제목의 논설에서 “경제적으로 발전도상나라들을 엮어매어놓고 착취와 약탈을 더욱 강화하자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속심(속셈)”으로 “발전도상나라들은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
  
- **北방송, 식량난 ‘외부요인’으로만 호도(7/23,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이 23일 북한의 식량난은 언급하지 않은 채 “식량위기 심화”의 원인으로 해외의 식량 수급 불안정 요인 4가지를 언급, 방송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보도물에서 “전문가들은 오늘의 식량부족 원인을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며 2005년 유럽의 흉작과 호주의 가뭄 피해, 원유가 폭등에 대처한 각국의 곡물 이용 생물연료 증가,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및 인도의 곡물 소비 증가, 지구 온난화 가속화와 농업투자 감소를 가리킴.
  
- **WFP, 北 식량 최악상황 넘겨(7/23, 연합)**

  - 북한은 미국의 식량지원과 감자, 밀, 보리 등의 수확 덕분에 “최악의 상황”을 넘겼으며 이에 따라 추수 이전 아사자 발생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지역 책임자인 쉐 팡 박사가 주장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쉐 팡 박사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 등 외부로부터 식량지원이 없었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도시의 가난한 주민들이 하루에 세끼 먹을 것을 두끼로 줄이는 등 소비를 줄일 수 있지만 아사나 기근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언급
  
- **北, 2009년 몽골에 건설노동자 파견(7/2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몽골 정부와 체결한 ‘노동자 파견 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건설노동자를 파견할 것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
  - 방송은 몽골 언론보도를 인용, “몽골 의회는 지난 20일 북한과 몽골 간에 체결한 노동자 파견에 관한 기본 협정을 승인했고, 몽골 사회복지노동부는 빠른 시일안에 북한 노동자들의 고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 몽골 외교통상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 몽골 정부는 북한 노동자들의 고용 규모와 이들의 노동력이 필요한 노동 현장, 그리고 최저 임금 등 노동 조건과 복지문제 등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짐.



#### 다. 군사 관련

- **北김일철, 경제건설 잘해야 반미대결서 승리(7/26, 조선중앙방송)**

  -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정전 협정 체결 55주년(7.27)을 맞아 열린 보고대회에서 경제건설을 강조하면서 “경제건설을 잘하는 것은 반제 반미 대결전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요구”라고 주장
  - 김 인민무력부장은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 승리’ 55주년 중앙보고대회 보고에서 “인민군 장병들은 전투훈련을 실전과 같이 벌여 전투력 강화에서 보다 큰 전환을 일으켜 나가고 혁명적 경각성과 전투적 긴장성을 견지하고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야 한다”며 “제국주의 사상 문화적 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을 단호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고 강조
  - 그는 “미국의 강경보수세력과 남조선 호전분자들이 새로운 침략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군사적 잠재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 침략자들에게 천백배의 심대한 타격을 안기고 반미 대결전을 선군조선의 최후 승리로 총결산할 것”이라며 “일본 반동들도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초래할 파멸적인 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하며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보고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영일 내각 총리, 김기남.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
  
- **北조평통, 주적 발언 강력 대응(7/23,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7/24, 조선중앙방송)**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상희 국방장관의 북한 주적 발언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한사코 부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조평통은 23일자 서기국 보도를 통해 이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北)를 걸고 최대의 주적이니 뭐니 하는 악의에 찬 망발”을 했다면서 “우리를 주적으로 단정한 것은 우리에게 대한 용납못할 도발”이라고 비난, 특히 “6·15이후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전면 차단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남조선 당국이 외세의존과 반공화국 대결 책동을 걷어치우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데로 나와야 할 것”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주적론까지 내들고 북남관계를 예측할 수 없는 파국적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
  
- **北, 美, 정치적 목적 대북 군사 압박(7/22,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22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정치적 양보를 받아 내기” 위한 것이나 “파국”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



- 신문은 ‘칼을 들고 악수를 청하는가’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미국이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대령급 접촉에서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통보한 데 이어 최신예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부산 입항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계단식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조선반도에서 정세를 고의로 긴장 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
- 이어 신문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벌어지는 중요한 시기에 미국이 ”대화 상대방인 우리를 자극 하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하고 있는 까닭은 ”외교적 대화와 병행해 군사적 압력과 위협을 적극 따라세운다면 상대방의 기를 꺾고 중대한 정치적 양보를 받아내며 대화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리라고 타산(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 라. 사회·교육· 문화 관련

- **평양 실내 스케이트장 피서지로 인기(7/26, 통일신보; 7/27, 우리민족끼리)**
  - 평양의 실내 빙상경기장인 빙상관이 삼복더위를 피하려는 주민들로 붐빈다고 북한의 주간지 통일신보가 보도
  -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신문은 “(빙상관이) 여느 날에는 (빙상관이) 전문 빙상선수들의 훈련장이나 경기장으로 이용되지만 일요일이나 명절날을 비롯한 휴식일이면 으레 일반 손님의 문화정서 생활을 위해 성의껏 봉사한다”고 소개
- **北응원단 28일 중국 입국(7/27, 연합)**
  - 중국의 복수 대북소식통들은 27일 “북한 올림픽응원단이 28일 선양(瀋陽)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는 응원단 규모는 180명에서 200명 사이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언, 북한 응원단은 평양에서 국제열차를 타고 선양으로 들어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북한 응원단은 일단 선양에 도착해 본격적인 응원 준비에 돌입하게 되며, 올림픽 기간 북한팀 경기가 있는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선양 등지를 돌며 현지 북한인들이 합류한 가운데 대대적인 응원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언
- **김일성전집 제74권을 출판(7/26, 조선중앙통신)**
  - 조선노동당출판사가 ‘김일성전집’ 제74권을 출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 책에는 1981년 8월부터 12월까지 김일성 주석의 연설, 담화 등 47건이 실려있음.
- **아시아양궁연맹, 평양서 감독 대상 강습(7/26, 조선신보)**
  - 아시아양궁연맹(AAF)이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평양에서 북한의 각급 양궁감독을 대상으로 강습을 실시, 조선신보는 이론과 실기



교육으로 진행된 강습에서는 최근 새롭게 달라진 양궁경기규칙, 활과 화살 비례의 선택방법을 비롯한 양궁기재 조종법, 서기, 활줄 당기기 자세, 활줄놓기 등 양궁의 기본기술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고 보도

\* AAF는 현재 기아자동차의 정의선 사장이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1983년 초대협회장을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이 맡은데 이어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BNG스틸 유홍중 회장 등 한국이 계속 회장직을 이어오고 있음.

#### ● 평양교예단 첫 유럽 단독공연(7/26, 조선신보)

- 평양교예단이 오는 8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유럽에서 처음으로 단독 공연을 갖는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은 평양교예단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1개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2개월 간 줄넘기, 널뛰기, 힘장사, 철봉비행, 비행기, 중심조형 등 10여 가지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교예단이 유럽 나라들에서 단독공연을 펼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

#### ● 英강사, 北대학 영어교수 실력 편차 大(7/26,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 대학 영어교수들의 실력이 초급에서 중상급까지 편차가 크다고 평양 김형직사범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국인 강사가 인터뷰
- 2006년 9월부터 영국문화원의 대북 영어강사 파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니컬러스씨는 26일 미국의소리방송과 인터뷰에서 “김형직사범대학 영문학부 강사와 교수들은 영어회화 중급 수준, 학부생은 중하급이나 초급”이고 “평양 이외 지역에서 사범대로 수업을 받으러 오는 지방(사범대학) 영어교수들은 초급에서 중상급 정도”라고 언급
- 그는 영국문화원이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을 활용해 대학생과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두달 코스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며 학생을 위한 강의는 90분 수업 45차례, 교수는 43차례라고 설명하고 북한 학생들의 학습태도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고 순종적이며 예의 바르다”고 평하면서 “학교에서 북한 교수들과 함께 일하지만 방과 후 같이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덧붙임.
- 영국 정부 산하의 영국문화원은 2000년부터 북한에 3명씩 영어강사를 파견해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외국어대학, 김형직사범대학에서 450명 정도의 교수와 학생을 교육해왔으며 오는 9월부터는 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관장하고 북한 당국과 의견을 조율할 선임강사 1명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

#### ● 北, 발해·고려史 연구토론회 개최(7/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발해 건국 1천310주년과 고려 건국 1천90주년을 맞아 24일 평양에서 발해와 고려 역사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집단체조 ‘아리랑’ 8월초~9월말 공연(7/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집단체조 ‘아리랑과 ‘변영하라 조국이어’가 8월 초부터 9월말까지 능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다고 공식 발표
  - 새로 만든 집단체조 ‘변영하라 조국이어’는 북한의 지난 60년을 모두 5장 12절로 나눠 묘사한 것으로, 공장.기업소 근로자와 각급 학교 학생, 유치원생 등 수만명이 출연하고 아리랑공연과 겹치지 않도록 낮시간대에 공연
  
- **곡창지대 황해도 100~135mm 폭우(7/24,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개성을 비롯해 황해남도 룡연, 태탄, 장연, 웅진, 벽성, 배천, 강령, 황해북도 장풍 지역에서 100~135mm의 “비와 폭우”가 내렸으며 평양, 평남 평성, 황북 사리원, 황남 해주, 강원 원산에서는 “비와 소낙비”가 내렸다고 보도하고 24일 밤과 25일에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평양, 평성, 사리원, 해주, 원산 등지에서 비가 더 내릴 것이라고 예보
  
- **北10대, 러시아어 올림픽서 돌풍(7/24, 조선신보)**

  - 북한의 10대 학생들이 6월 23~29일 모스크바 푸슈킨국립러시아어 대학에서 열린 제12차 국제학생 러시아어 올림픽에서 돌풍을 일으킴. 조선신보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평양외국어대학 부설 외국어학원 생이 최우수상 2명, 1등상 7명, 2등상 2명의 성적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며 북한 학생들은 이전 5차, 6차, 11차 대회에서도 정상에 올랐다고 보도
  
- **北, 복날엔 ‘단고기’가 최고(7/24, 조선신보)**

  - 북한여름철 복날 보양식으로 가장 인기있는 음식은 단연 ‘단고기’ (개고기) 탕요리, 조선신보는 24일, “19일은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이었고 조선(북)에서 초복날이 오면 사람들은 단고기장 음식을 내는 식당으로 제일 많이 찾아가다”며 “시내에서 단고기장 음식으로 유명한 평양단고기집, 문흥단고기집, 장진단고기장집을 비롯한 전문 단고기장집들에서는 초복날의 단고기 음식을 맛보려는 수많은 사람들로 차고 넘쳤다”고 소개
  
- **북송 비전향장기수 리인모 동상 건립(7/23, 조선중앙통신)**

  - 지난 1993년 북송된 비전향장기수 리인모(2007년6월 사망)씨의 반신 동상이 평양시 통일거리에 세워져 23일 제막식이 열렸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동상은 “수인복 차림으로 철쇄에 묶인 두 주먹을 억세게 틀어쥐고 있는 모습”이며, 제막식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김기남 당 비서 등이 참석했다고 통신은 보도



- **올림픽에 11개종목 63명 참가(7/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올림픽위원회 체육분과위원회의 정해만 부위원장은 제29회 베이징올림픽대회에 10여개 종목 6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 정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올림픽에는 리금숙을 주장으로 한 여자 축구팀과 여자 유도 계순희, 안금애 가 출전, 또 역도의 차금철, 임용수, 박현숙과 레슬링의 차광수가 참가하며 권은실(여), 손혜영(여.이상 양궁), 김정수, 류명연, 박정란(여), 조영숙(여.이상 사격), 김성국(복싱) 등도 올림픽 무대에서 기량을 겨룬다.
  
- **北, 쌍방향 화상강의 프로그램 개발(7/22, 조선중앙통신)**
  - 김형직사범대학이 컴퓨터를 통해 화상강의와 질의응답, 시험까지 가능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 대학 교육정보센터의 리진섭 소장은 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대학 교육의 질을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원격강의 체계”와 함께 “수학, 논리학, 물리 가상실험 체계를 비롯해 소학교(초등학교), 중학교(중.고교) 학생의 과외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유치원용 프로그램인 우리말 배우기, 셈세기, 시창 등도 내놨다”고 언급
  
- **유럽 감자요리책 번역출간(7/22, 조선신보)**
  - 외국문도서출판사에서 유럽의 각종 감자 요리를 소개한 책 ‘감자 음식 500가지’를 번역, 출간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은 “조선(북한)에서 경제적 의의가 큰 농작물의 하나인 감자를 주민의 식생활에 다양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책을) 번역 출판했다”고 설명
  
- **중국에서 공부하는 북한 유학생 877명(7/22, 연합)**
  - 중국 교육부는 22일 2007년 말 현재 중국이 접수한 북한 유학생은 장기 유학생 703명, 단기 유학생 174명 등 모두 877명이라고 발표
  
- **北, 국제수학올림피아드 7위(7/22, 연합)**
  - 북한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49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7.10~22)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로 종합 7위를 기록, 북한은 총점 173점을 얻어 지난해 베트남 대회에서 8위를 했을 때의 151점보다 22점 많이 얻었음.
  - 이 대회 1위는 중국이 차지했고 이어 2위는 러시아, 3위는 미국, 4위 한국 순



## 2. 대외정세

### 가. 6자 회담관련

- **박의춘, ARF도 행동 대 행동원칙 참고해야(7/26,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6일 박의춘 외무상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5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 연설 내용을 상세히 보도
  -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박 외무상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내놓은 ‘행동 대 행동’ 원칙은 오늘에 와서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의 찬동 밑에 사실상 하나의 행동규범으로 확립되었다”며 “우리는 실천으로 검증된 이러한 신뢰구축 방도가 연단(ARF)의 사업에도 건설적으로 참고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박 외무상은 남북관계와 관련, “연단의 일치한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사실상 부정하는 정권이 출현해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금 조선반도의 평화는 선군정치의 결실인 우리의 전쟁 억제력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
  - 박 외무상은 “조선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9·19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수호하고 핵문제 해결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는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ARF의장성명 ‘금강산 피살’ 문구 삭제(7/26, 연합뉴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반영됐던 ‘금강산 피격’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10·4선언’ 관련 문구가 최종 문서에서 삭제, 외교부 관계자는 25일 “오늘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가 싱가포르 외교 차관과 만나 10·4선언 관련 문구를 빼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10·4선언 관련 문구를 빼면서 금강산 피살 관련 문구도 같이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힘.
  
- **北, 한국軍 시설도 핵사찰 요구(7/2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앞으로 이뤄질 핵신고서의 검증과정에서 주한미군 시설 뿐 아니라 한국군 시설에 대한 사찰도 요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4일 보도
  - 방송은 익명의 미국 내 외교전문가의 언급을 인용,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차원에서 북한 뿐 아니라 한국 영토에 직접 들어가 비핵화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은 최근 베이징 6자 회담을 포함해 지금까지 회담이 열릴 때마다 이 같은 요구를 제기해왔다”고 주장



- RFA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은 주한미군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지 않는 검증체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힘.

\*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 7월 17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핵 관련 비공개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북한 핵시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모든 종류의 검증을 받고 있고, IAEA의 세이프가드 하에 있다”면서 “북한이 원한다면 이(한국에 대한 검증)를 주선할 수도 있다”고 언급

## 나. 북·미 관계

### ● 北, 美의 평화협정 체결 용단 촉구(7/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정전협정 체결 55주년(7.27)을 하루 앞둔 26일 “미국은 오늘의 역사적 흐름과 정세발전 추이를 똑바로 보고 하루빨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
-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조(북)·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미국은 조선 정전협정의 조인 일방이며 따라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실제적 당사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미국은 우리의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평화제안들을 모두 부정하거나 외면해 왔다”고 비난
- 조선중앙통신은 “현 정전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우발적 요인에 의한 군사적 충돌도 파국적인 전쟁도 막을 수 없다”면서 “조선반도에서 정전상태가 완전히 종결되려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교체되어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군사적 대결과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 열쇠”라고 강조

### ● 북·미 전쟁상태 속 일방적 핵포기 불가능(7/2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북한이 “조국해방전쟁승리”라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 55돌(7.27)을 맞아 “전쟁상태에서 핵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군민(軍民)의 목소리”라고 강조
- 조선신보는 북한과 미국이 아직도 “교전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일방적인 무장해제나 다름없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북미간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조(북)미 사이에 기술적으로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증 가능한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핵포기는 적대국의 위협 앞에서 총부리를 내리는 일방적인 무장해제나 다름없고, 일방적 무장해제는 실현불가능하다”고 강조



- 또 “제3단계(핵폐기)에서 취하게 될 행동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정치적 보상 조치를 취하는 데 맞게 조선이 핵시설을 무력화하고 핵신고서를 제출하는 현 단계보다 복잡성을 띠게 될 것”이라고 전망

#### ● 북·미, 7월 말쯤 ‘검증협약’ 착수(7/25, 연합)

- 북한과 미국은 북핵 핵심현안인 검증계획서(프로토콜)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내주께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알려짐. 이와 함께 6자 회담 참가국들은 7월 말이나 8월 초 중국 선양(瀋陽) 등에서 비핵화 실무그룹회의를 열어 북·미 협의 결과를 토대로 검증 계획서 협의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
- 외교소식통은 25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시한인 8월 11일까지 검증체계 구축이 마무리되고 검증활동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인 만큼 북한과 미국이 곧 본격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
- 특히 미국은 7월 10~12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6자 수석대표회의 기간 북한에 전달한 4페이지 분량의 검증계획서 초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언급

#### ● 유엔, 대북 고위급 대화채널 복원 추진(7/25, 연합)

- 유엔이 그동안 중단됐던 대북 고위급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북한 내에서의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대북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 또 유엔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일정 궤도에 오른 이후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도 이뤄질 전망
- 유엔의 고위 관계자는 “모리스 스트롱 전 유엔 대북특사가 물러난 뒤 지난 3~4년간 북한과의 고위급 접촉이 중단됐었는데 이를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유엔의 대북 사업 등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유엔의 대북 관계를 전담할 간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언급
- \* 스트롱 전 특사는 코피 아난 사무총장 시절 대북특사로 활동하다 유엔의 ‘석유-식량 프로그램’과 관련한 비리 연루 의혹으로 2005년 7월 물러났고 이후 유엔의 대북 고위급 대화채널은 중단

#### ● 라이스, 45일내 北테러지원국 해제 불가 시사(7/25, 연합)

-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24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표가 당초 예상됐던 오는 8월11일까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
- 라이스 장관은 24일 싱가포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문제와 관련, “45일 통보기간은 최소한 통보기간(minimum notification period)”이라면서 “북한 신고내역을 검증할



수 있다고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이(테러지원국 해제)를 발효할 지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

- 또 라이스 장관은 미국이 북한에 검증방안 초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이제 공은 북한쪽에 넘어가 있다”면서 “모든 참가국들은 북한이 검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임.

#### ● 부시, 독재정권 예시하면서 北은 미거론(7/25, 연합)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4일 전세계 독재정권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거론하지 않아 최근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 이후 북미간 관계개선 기류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음.
- 부시 대통령은 미 연방정부내 대외원조 및 개발업무 지원기관인 국제개발청(USAID)에서 제2기 부시 행정부의 통치이념 중 하나인 ‘자유(Freedom Agenda)’를 주제로 연설하는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은 “지난 7년간 우리는 이란, 수단, 시리아, 짐바브웨와 같은 독재정권의 인권유린에 맞서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독재정권 사례에서 북한을 거론하지 않음.

#### ● 美, 北에 ‘금강산피살’ 남북대화 촉구(7/24, 연합)

- 미국이 지난주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에 금강산피살 사건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24일 알려짐. 또 중국 측도 최근 북한에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 北대표단, 박의춘-라이스 상봉 아주 유익(7/24, 연합)

-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중인 북한 대표단이 24일 전날 열린 비공식 6자외교장관 회담 과정에서 북·미 외교장관 회동 사실을 확인하고 “아주 유익했다”고 평가
- 북측 대표단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리동일 외무성 군축과장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도를 통해 알겠지만 어제 6자 외무상회담 테두리 안에서 회의를 하면서 여가시간에 박의춘 외무상과 라이스 장관간 상봉이 있었다”면서 “상봉은 아주 유익했다”고 언급, 리 과장은 또 “이 상봉에서 박의춘 외무상은 현 단계에서 9·19 공동성명 상의 2단계 행동조치를 잘 마무리하는 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언급
- 그는 이어 검증체계 문제와 관련, “검증은 우리 하나만 검증하는게 아니라 6자에 대해 모두가 자기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고 감시하는 문제”라면서 “또 이것은 지난 7월 베이징에서의 합의사항을 따른 것으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 만큼 검증 역시 이 원칙에 따라 각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 리 과장은 금강산 피살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그 사건은) 외무성 관할이 아니며 북남문제”라고 재차 답변을 회피



● **오바마 ‘北핵무기 8개’ 발언(7/24, 연합)**

-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23일 이례적으로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 개수가 8개”라고 구체적인 수를 언급, 오바마는 또 이스라엘이 작년에 공습한 시리아의 핵 시설이 북한의 핵시설과 비슷한 모델을 이용해 개발하고 있던 시설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

● **힐, 北에 과거 핵활동 검증방안 제시(7/22, 연합)**

-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미국은 이미 북한에 과거 핵 활동 검증 방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힘. 아세안지역포럼(ARF) 참석 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힐 차관보는 기자들에게 미국의 제안은 지난 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에 전달됐으며 북한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

● **백악관, 북한은 여전히 ‘악의 축’ 일부(7/21, 연합)**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을 여전히 ‘악의 축’ 일부로 믿고 있다고 테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이 21일 언급, 페리노 대변인은 (핵 폐기로 다가가는) 북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 포기의 반대급부로 제시된 인센티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
- 그는 부시 대통령이 두 나라를 여전히 ‘악의 축’으로 여기냐는 질문에 “그들이 핵 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포기할 때까지는 우리는 그들을 (악의 축이라는) 카테고리에 남겨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

다. 북·중 관계

● **노동신문, 一國兩制 양안관계 지지(7/22,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22일 중국과 대만간 양안관계의 진전을 소개하면서 “한 나라, 두 제도” 노선을 일관되게 틀어쥐고 나라의 통일과 양안의 평화적 발전을 이룩하려는 중국 당과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중국의 대만통일 원칙인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지지
-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신문은 ‘한나라, 두 제도 노선을 일관하게 견지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국과 대만간 정기 항공노선의 운항 소식을 전하고 이를 “서로 신뢰하고 공통점을 추구하며 통일과 번영,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려는 중국과 대만의 적극적인 의지의 산물”이라고 평가

● **올림픽 기간, 北-中 접경 교량 모두 폐쇄(7/21, 연합)**

- 중국은 올림픽 기간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의 접경 교량을 모두 폐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北, 日MD, 동북아 안보 파열구(7/23,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23일 일본의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 노력을 “선제 공격용”이라고 비난하면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
- 신문은 ‘또 다시 되살아난 미사일 광증’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자위대의 9월 중순 패트리엇 3(PAC-3) 미사일 시험발사 계획을 지적, “일본은 안보상 위협을 느껴서가 아니라 선제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미사일 방위체계수립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제 일본의 손에 완성된 미사일 방패가 쥐어지는 경우 일본의 선제공격 능력은 기본적으로 완성되게 된다”며 “이것은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 재침 책동이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고 현실적 위협을 띄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

마. 기타외교 관계

● **박의춘 외무상, 베트남 도착(7/26, 조선중앙방송)**

- 박의춘 외무상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마치고 25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北, 아세안 우호협력조약 가입(7/24, 연합)**

- 북한이 24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 박의춘 외무상과 아세안 가입 10개국 외교장관들은 24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북-아세안 평화.우호협력 조약식’을 갖고 북한과 아세안 간의 불가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약에 서명
- 북한 대표단 대변인인 리동일 외무성 군축과장은 조약식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아시아 자주권의 원칙과 아세안 친선 관계에 도움이 되고 지역내 모든 나라와 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지역 평화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
-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동남아 우호조약 가입을 환영하며 가입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표
- \* 1976년 아세안 가입국끼리의 협약으로 시작된 아세안 우호협력 조약에는 북한을 포함해 총 25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4년에 가입

● **평양서 北·이집트 친선모임(7/23, 조선중앙통신)**

- 이집트 혁명 56돌을 기념한 친선모임이 23일 북·이집트 친선학교인 평양 김성주소학교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 자리에는 이스마일 압둘라흐만 고네임 후세인 주북 이집트 대사와 서호원 북·이집트 친선협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北·싱가포르 외교장관 회담(7/23, 조선중앙통신)**

- 싱가포르를 방문한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22일 조지 여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은 회담에 북한측 대표단과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 싱가포르 외무부의 제2상임비서 등이 참석했다며 “쌍방은 두 나라 사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해서와 호상(상호) 관심사인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

**3. 대남정세**

● **개성병원 남북협진 강화(7/26, 연합)**

- 국제의료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는 북한 치과의사가 남측진료소에 상주해 남측의사들과 협력진료를 하고 남측의사들이 북측진료소에서 북한 여성근로자들을 상대로 산부인과 진료를 하는 등 개성병원의 남북협력 진료가 강화됐다고 26일 발표
- 정근 그린닥터스 상임공동대표는 7월 24일 개성공단에서 림홍배 북측 진료소장 등 북측 대표단과 만나 협진강화에 합의, 이에 따라 북측 최금철 치과의사가 당일부터 남측진료소에서 남측 의사와 함께 매달 북측 근로자 30명에게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있으며, 남측 의료진 3명도 매주 목요일 개성병원에서 북측근로자들을 치료하게 됨.

● **금강산 피살사건 합조단장 발표(7/25, 연합)**

-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을 조사해온 정부합동조사단의 황부기 단장은 2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고(故) 박왕자씨의 사망 지점이 북측 의 최근 설명과 100m 차이가 난다고 밝히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현지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 **김태호 경남지사 방북 ‘일단 연기’(7/25, 연합)**

- 경남도 김종진 행정안전국장은 25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갖고 “도와 경남통일농업협력회(경통협)는 최근의 남북 상황을 고려해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계획했던 대표단 방북을 다음 기회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북측 일정상 9월중에는 아리랑 공연 등 일정이 있어 9월말을 전후해 새로 일정을 잡아 통일부와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 **정부, 납북자 위로금 8억여원 심의(7/25, 연합)**

- 정부는 25일 오후 제8차 납북자피해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금순)를 열어 납북자 가족에 대한 위로금으로 8억1천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



- 위로금 지급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 남북자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지난 4월 첫 위로금 지급 결정을 시작으로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9억3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며,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위로금은 총 53억원임.

● 北, ‘남북 민간교류 ‘8·15 이전, 9·20 이후’에 하자’(7/24, 연합)

- 24일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 따르면, 운동본부 측은 당초 8월 21일 평양에서 북한과 함께 ‘정성의학종합센터’ 종합 품질관리실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북측이 이런 의사를 전달 해와 상호 합의해 행사를 9월20일부터 23일 사이에 갖기로 함.
- 양측이 일정 조율을 하는 과정에 북한은 7월 12일 대남기구인 민족 화해협의회(민화협) 명의로 운동본부측에 팩스를 보내 “8월15일 이전이나 9월20일 이후에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준공식을 예정보다 앞당겨 8월12일 갖는 방안을 제안

● 정부, 민간단체 대규모 방북에 부정적(7/23, 연합)

- 정부가 북한 아리랑 공연 관람 등을 위한 국내 민간인사들의 대규모 방북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23일 알려짐.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7월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따른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 아리랑 참관 등을 위한 국내 민간인사들의 대규모 방북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예전에도 남북간 교류협력에 도움이 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남북간 신뢰조성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 왔다”면서 “원칙은 변함없지만 그러한 원칙을 둘러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 방북 심사에서 ‘상황논리’가 엄격히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美상원 전문위원들, 핵폐기 예산 실사차 방북(7/25)

-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들이 북핵 폐기 예산의 실사를 위해 현재 북한을 방문 중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 RFA는 미 의회 소식통을 인용, 세출위원회 산하 국무부 대외활동 소위원회 소속의 전문위원 서너명이 북한에 4~5일정도 머물면서 영변의 핵불능화 시설을 둘러보고 북측 관계자들을 면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소식통은 특히 “전문위원들은 북핵 폐기에 들어가는 실제 소요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며, 이들의 실사 보고서에 따라 이미 배정된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북핵 불능화 예산도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 유엔, 대북 고위급 대화채널 복원 추진(7/25)

- 유엔의 고위 관계자는 24일 “반 총장이 최근 한·중·일을 방문하면서 북한은 방문하지 않았는데 북한은 사무총장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듣고 있다”면서 “반 총장의 방북을 위해서는 더 준비가 필요하고 선행돼야 할 것들이 있다”고 밝혔다.
- 이 관계자는 “모리스 스트롱 전 유엔 대북특사가 물러난 뒤 지난 3~4년간 북한과의 고위급 접촉이 중단됐었는데 이를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유엔의 대북 사업 등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유엔의 대북 관계를 전담할 간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라이스, 45일내 北테러지원국 해제 안할 가능성도 시사(7/25)

-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문제와 관련, “45일 통보 기간은 최소한 통보기간(minimum notification period)”이라면서 “북한 신고내역을 검증할 수 있다고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이(테러지원국 해제)를 발효할 지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국무부가 전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통보한 뒤 의회가 입법을 통해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45일을 경과해 효력을 갖게 됨.
- 라이스 장관은 “45일은 최소 통보기간이지만 우리는 (북핵 검증에 만족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실히 기대하고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면서 “북한이 검증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지, 또 이에 따라서 행동할 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ARF성명서 ‘금강산·10.4선언’ 문구 빠져(7/25)**

-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5일 기자회견을 찾아 “오늘 아침 이용준 차관보가 싱가포르 외교차관과 만나 10.4선언 관련 문구를 빼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10.4선언 관련 문구를 빼면서 금강산피살 관련 문구도 같이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 차관보는 싱가포르 외교차관에게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10.4선언과 관련한 발언은 북한 밖에 하지 않았는데 왜 의장성명에 포함됐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 그는 “금강산피살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지지하는 발언은 우리 뿐만 아니라 5~6개국 외교장관이 함께 했다”며 “충분한 효과를 봤다는 판단 아래 두 문구를 함께 빼기로 합의했다”고 설명.

● **라이스, 45일내 北테러지원국 해제 안할 가능성도 시사(7/25)**

-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문제와 관련, “45일 통보기간은 최소한 통보기간(minimum notification period)”이라면서 “북한 신고내역을 검증할 수 있다고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이(테러지원국 해제)를 발효할 지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무부가 전했다.
- 앞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북한이 북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자 미 의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할 방침임을 통보했음.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통보한 뒤 의회가 입법을 통해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45일을 경과해 효력을 갖게 됨.

● **ARF성명, ‘금강산피살’ 조속해결 기대(7/24)**

- 조지 여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참가국 장관들은 금강산 피살 사건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이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장관들은 회담에서 작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과물인 10.4선언을 주목한다”면서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의 지속적인 발전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 **“美, 시한내 ‘北 테러국해제’ 안할 수도”(7/24)**

- 외교소식통은 24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절차는 의회통보 이후 45일간 해당국의 조치를 평가한 뒤 만족할 수준이 될 경우에 한해 국무장관이 공식 해제선언을 해야 완결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 측에 이런 해제절차에 대해 집중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3일 싱가포르 비공식 6자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만나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체제 확립 등 검증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직접 촉구했음.

#### ● ARF서 북핵-금강산사건 논의..北 한국정부 비난(7/24)

-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대화상대 10개국, 북한과 몽골 등 모두 27개국 외교장관들은 24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제15차 ARF를 열어 빈부격차, 식량·에너지 위기,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복구 문제 등 역내 현안과 북핵 문제를 포함한 국제 현안 등을 논의했음. 비핵화 2단계 마무리와 핵 검증 단계에 와 있는 북핵 현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으며 한국측 주도로 금강산 민간인 피살사건도 현안으로 다뤄졌음.
- 북한 박의춘 외무상과 아세안 가입 10개국 외교장관들은 ARF 장관 회의가 끝난 뒤 샹그릴라호텔에서 ‘북-아세안 평화·우호협력 조약식’을 갖고 북한과 아세안 간의 불가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약에 서명했음.

#### ● “北, 한국軍 시설도 핵사찰 요구”<RFA>(7/24)

- 북한이 앞으로 이뤄질 핵신고서의 검증과정에서 주한미군 시설 뿐 아니라 한국군 시설에 대한 사찰도 요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4일 밝혔음.
- 이 방송은 익명의 미국 내 외교전문가의 언급을 인용,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차원에서 북한 뿐 아니라 한국 영토에 직접 들어가 비핵화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은 최근 베이징 6자회담을 포함해 지금까지 회담이 열릴 때마다 이 같은 요구를 제기해왔다”고 전했다.
- RFA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은 주한미군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지 않는 검증체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음.

#### ● 오바마 이례적 북핵 거론..“北 핵무기 8개 개발”(7/24)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이날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지난 1년반 동안 핵문제 해결 등을 위해 외교적 대화를 주장해 온 근거로 “대화를 하지 않고 있을 때 북한은 핵무기 8개를 개발했고 대화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핵무기와 핵시스템(핵시설과 프로그램)들을 해체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말했음.
- 오바마는 시리아 핵시설을 겨냥한 이스라엘측의 공습과 관련, “그들이 핵을 이용하거나 또는 북한의 모델과 유사한 설계를 사용한 시설을 건설중이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고 말했음. 또 당국은 그들이 반응을 보였을 때 국제사회에 다가설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채찍은 강경한 규제조치가 될 수 있다고 오바마는 설명했다.

### ● 라이스, 北외무상에 북핵검증이행 직접 촉구(7/24)

- 국무부에 따르면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라이스 장관과 박 외무상의 만남 및 대화에 대해 “아주 짧았지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다”면서 “라이스 장관은 검증합의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납북자 문제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 라이스 장관은 이어 비공식 6자 장관회담에 대해 “아주 유익했고, 놀랄만한 일은 없었다”면서 “참석자들이 9.19 공동성명과 10.3 공동합의, 북핵 2단계 국면에서 각자가 의무를 이행하고 조속히 3단계로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확인했으며 북핵검증방안 합의와 그 중요성, 6개국간 양자관계 개선 등에 대해 많은 토론을 가졌다”고 밝혔다.

### ● 라이스 “6자 외무회담 분위기 정말 좋았다”(7/24)

- 라이스 장관은 또 80분 가량 진행된 이날 회담이 “서로 떨어져서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견을 주고 받는 형식이었다”며 박 외무상과도 두 차례 악수를 나눴다고 말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음을 시사했음.
- 라이스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6자 회담 참가자 모두가 기본적으로 기존의 합의를 확인하고 우리가 2단계 의무사항을 신속하게 매듭짓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증의정서와 그리고 검증의정서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논의와 함께 다자관계에서 더 나은 양자관계의 요구 등이 이번 회담에서 제기됐다고 소개했음.
- 라이스 장관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진전을 이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다”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몇 개월간 또 다른 의견충돌을 벌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긴박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 ● “美, 북핵검증초안서 시한 설정 안해”<WT>(7/23)

-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신고 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북한에 제시한 검증 초안에서 시한(timeline)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워싱턴타임스(WT)가 23일 보도.
- 타임스는 이날 싱가포르발(發) 기사에서 비공식 북핵 6자 장관회담에 배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중인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北, 검증장치 마련될 때까지 테러지원국 해제말아야” <WT>(7/23)

  -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정확하게 신고하고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며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전통보없는 방문에 합의할 때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면 안된다고 미국의 보수언론인 워싱턴 타임스(WT)가 23일 주장했다.
  -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방침이 내달 1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타임스는 이날 ‘북한 핵신고내역 검증의 구멍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 타임스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북한이 지난 달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핵신고서에서 시리아와의 핵협력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지 않았고,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핵무기를 생산하려는 노력을 중단했다는 것을 검증토록 하는 절차에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6자외교장관 ‘6개항 합의’..남북 외교장관 접촉(7/23)

  -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외교장관들은 23일 오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회동, 비핵화 2단계 마무리와 북핵 검증,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 등을 논의했음.
  -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은 6개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6자회담 과정이 핵문제 해결과 이 과정에서 양자관계 개선, 정상화문제, 궁극적으로 동북아평화와 화해라는 목적을 이루는 중요한 플랫폼이리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 비핵화 2단계 이행에 있어 완전하고 균형적인 마무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신속히 북한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으며 공식적인 외교장관회담을 적절한 시기에 조속히 개최키로 했다고 말했다.
  
- 박의춘 “北정부, 완전한 의무이행 의지”(7/23)

  - 북측 대표단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리동일 외무성 군축과장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6자 비공식 외교장관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외무상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6개국 모두가 완전한 의무이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 리 과장은 이어 “박 외무상은 또 북한 정부의 완전한 의무 이행을 의지를 밝혔으며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다른 나라의 상응조치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남북 외교장관, 6자무대서 접촉(7/23)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3일 비공식 6자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박의춘 북한 외무상을 만나 양자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박의춘 외무상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우리의 뜻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봤다”며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 6자외교장관 ‘6개항 합의’..“2단계 균형적 마무리”(7/23)

-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외교장관들은 23일 오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회동, 비핵화 2단계 마무리와 북핵 검증,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 등을 논의했음. 6개국 장관들은 특히 비핵화 2단계의 조속한 마무리와 이를 위한 참가국들의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6개항의 합의를 도출했음.
- 6개 합의에는 ▲6자 외교장관들은 6자회담이 진행되면서 이룬 업적들이 있었다는데 동의했고 ▲지금까지 합의에 따라 각자가 해야 할 의무사항을 앞으로 완수해나가기로 재확인했으며 ▲ 6자회담 과정이 핵문제 해결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자관계 개선, 정상화문제, 궁극적으로 동북아평화와 화해라는 목적을 이루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는 데 동의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음.
- 비핵화 2단계 이행에 있어 완전하고 균형적인 마무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신속히 검증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으며, 6자회담 과정의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수석 대표들의 분발을 촉진하고, 공식적인 외교장관회담을 적절한 시기에 조속히 개최키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음.

### ● 양제츠 “3단계 진입 앞둔 중요한 순간”(7/23)

-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비공식 6자 외교장관회담 개막 발언에서 “6자 프로세스는 상호 간 신뢰를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플랫폼”이라 말했음. 그는 “이번 비공식 회담은 6자 프로세스를 진전시켜나갈 의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 한미 외교장관, 북핵 검증-금강산사건 논의(7/23)

- 유명환 외교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23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갖고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 준비와 북핵 문제, 남북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두 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 3번째 회담으로, 양국간 신뢰와 협력을 제고하고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했음.
- 한·미 외교장관은 특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비공식 6자 외교장관 회담을 환영하며 향후 공식 회담도 성사돼 6자회담 진전을 위한 정치적 추동력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음.

### ● 6자 외교장관회담 개최..북미 회동 주목(7/23)

-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23일 오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참석차 싱가포르에 모인 6개국 외교장관들은 비공식



회담에서 6자회담의 목적인 북핵 폐기에 대한 각국의 의지를 재확인 하는 한편 최대 쟁점인 검증체계 구축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개진했음.  
- 유 장관은 또 한·아세안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중국, 러시아, 스리랑카 등과도 외교장관회담을 가졌음.

● **中, 비공식 6자 외교장관회담 개최 확인(7/22)**

- 남북한과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 들이 23일 싱가포르에서 비공식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고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2일 밝혔음. 류 대변인은 “6개국 외교 장관들이 내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에서 만날 것”이라고 발표하고 “우리는 공동성명에 규정된 목표가 조기에 성취될 수 있도록 이번 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힐 “北, 조속히 南과 대화 나서야”(7/22)**

-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2일 금강산 피살사건과 관련, “50세가 넘는 중년의 여성 관광객을 사살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 힐 차관보는 이날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싱가포르 상그릴라 호텔에서 가진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금강산 피살사건에 대한 김 본부장의 설명을 들은 뒤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이 문제 조사에 협조하고 조속한 시일내 (한국과의) 대화에 응해야한다”고 밝혔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한·미 6자 수석대표는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음.

● **김 숙 “北에 검증체계 초안전달..공은 北에”(7/22)**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싱가포르 상그릴라호텔에서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한 뒤 “공은 북한 코트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6자 수석대표회의 에서 검증체계의 세부사항을 담은 초안을 북측에 전달했다”면서 “현재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음. 김 본부장은 이어 “힐 차관보와는 주로 검증에 관해 논의했다”면서 “검증체계를 어떻게 최대한 빨리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음.

● **싱가포르 6자 외교장관회담은 北아이디어(7/22)**

- 북한은 6자회담 일부 참가국들이 8월초 베이징 올림픽 개막을 전후한 시점에 장관급 회담을 갖자는 제안을 하자 올림픽 분위기 등을 감안



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싱가포르 회담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북핵 현안에 정통한 고위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당초 6자회담 의장국 중국은 가급적 6자 외교장관회담을 베이징에서 개최하고 싶었고, 6자회담 참가국간에 이를 위한 협의가 진행됐었다”면서 “의견조율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싱가포르 회담이 성사된 것은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 ● 힐 “北에 과거 핵활동 검증방안 제시”(7/22)

-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미국은 이미 북한에 과거 핵활동 검증 방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세안지역포럼(ARF)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힐 차관보는 기자들에게 미국의 제안은 지난 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에 전달됐으며 북한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힐 차관보는 “우리는 북한에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 ● 柳외교 “北에 정부간 대화 요청할 것”(7/21)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중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금강산 피격 사건의 해결을 위해 북한 측에 정부간 대화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유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 도착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강산 피격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 정부간 대화를 조속한 시일 내에 열자고 (박 외무상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공식 회담 일정은 없지만 접촉 기회가 마련되면 이같은 우리측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나. 미·북 관계

#### ● 北 통신 “美, 평화협정 체결 용단 내려야”(7/26)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정전협정 체결 55주년(7.27)을 하루 앞둔 26일 “미국은 오늘의 역사적 흐름과 정세발전 추이를 똑바로 보고 하루 빨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통신은 이날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조(북)·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해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또 “미국은 조선 정전협정의 조인 일방이며 따라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실제적 당사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미국은 우리의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평화제안들을 모두 부정하거나 외면해 왔다”고 비난했음.

● 北 박의춘 “ARF도 행동 대 행동원칙 참고하기를”(7/26)

- 중앙방송에 따르면 박의춘 외무상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내놓은 ‘행동 대 행동’ 원칙은 오늘에 와서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의 찬동 밑에 사실상 하나의 행동규범으로 확립되었다”며 “우리는 실천으로 검증된 이러한 신뢰구축 방도가 연단(ARF)의 사업에도 건설적으로 참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박 외무상은 남북관계와 관련, “연단의 일치한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사실상 부정하는 정권이 출현해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금 조선반도의 평화는 선군정치의 결실인 우리의 전쟁 억제력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

● 北 통신 “美, 평화협정 체결 용단 내려야”(7/26)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정전협정 체결 55주년(7.27)을 하루 앞둔 26일 “미국은 오늘의 역사적 흐름과 정세발전 추이를 똑바로 보고 하루빨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음. 통신은 이날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조(북)·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해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 또 “미국은 조선 정전협정의 조인 일방이며 따라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실제적 당사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미국은 우리의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평화제안들을 모두 부정하거나 외면해 왔다”고 비난.

● “북·미 전쟁상태 속 일방적 핵포기 불가능” <조선신보>(7/26)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6일 북한과 미국이 아직도 “교전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일방적인 무장해제나 다름없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북미간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북한의 외교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이 신문은 “조(북)미 사이에 기술적으로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증 가능한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낙관적이다”라며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핵포기는 적대국의 위협 앞에서 총부리를 내리는 일방적인 무장해제나 다름없고, 일방적 무장해제는 실현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조선신보는 북한이 “조국해방전쟁승리”라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 55돌(7.27)을 맞아 “전쟁상태에서 핵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군민(軍民)의 목소리”라고 전했다.



● “北 함경·량강도 식량위기 상황” <UN> (7/26)

- 북한의 함경도와 량강도가 현재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다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웹사이트 ‘릴리프웹’이 26일 밝혔다. 릴리프웹은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 22일까지의 자료를 종합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인용, 최근 몇 달 간 북한의 식량안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함경북도, 량강도 전역과 함경남도 일부 지역을 극심한 식량 및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했다.
- 보고서는 이들 지역이 불충분한 식량공급, 식생활 다양성 부족, 영양실조 증가, 전염병 가능성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망했다. 8~9월에는 ‘인도주의적 긴급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WFP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세계 각지의 식량상황을 ‘만성적인 식량난’, ‘극심한 식량 및 생계위기’, ‘인도주의적 긴급상황’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 북·미, 이달 말쯤 ‘검증협약’ 착수(7/25)

- 북한과 미국은 북핵 핵심현안인 검증계획서(프로토콜)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내주께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6자회담 참가국들은 내주 말이나 다음달 초 중국 선양(瀋陽) 등에서 비핵화 실무그룹회의를 열어 북·미 협의 결과를 토대로 검증 계획서 협의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북한과 미국은 북핵 핵심현안인 검증계획서(프로토콜)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내주께 특히 미국은 지난 10~12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6자 수석대표회의 기간 북한에 전달한 4페이지 분량의 검증계획서 초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 부시, 독재정권 예시하면서 北은 거론 안해(7/25)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 연방정부 내 대외원조 및 개발업무 지원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에서 제2기 부시 행정부의 통치이념 중 하나인 ‘자유(Freedom Agenda)’를 주제로 연설했다. 이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은 “지난 7년간 우리는 이란, 수단, 시리아, 짐바브웨와 같은 독재정권의 인권유린에 맞서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독재정권 사례에서 북한을 거론하지 않았다.

● “부시 외교정책 유턴...늦었지만 환영” <USA투데이> (7/24)

-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이날 사설에서 임기 말에 레임덕을 겪는 대통령들이 국내에서 힘이 빠지면 전통적으로 외교로 관심을 돌렸고 조지 부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지만 부시 행정부 임기 말년은 전임자들과 매우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이라크 침공을 밀어붙이고 어디에서나 힘을 과시하면서 적들과 대화를 거부하고 국제조약을 비웃었던 한동안 득세했던 신보수주의자들은 거의 사라지고 없고 전통적인 외교로 전환을 촉구하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것임.



- USA투데이는 부시 행정부는 예측이 불가능할지라도 악의 축의 주 멤버인 북한과 핵프로그램을 두고 진지한 대화를 해왔고 지난 23일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처음으로 북한의 카운트 파트너와 만났다고 전했다.
- “美하원, 北테러지원국 해제 요건강화법안 무산될 듯”(7/24)
  -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에 필요한 요건을 강화하려고 했던 미 하원의 법안 입법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4일 밝혔다.
  - 이 방송은 미 의회 핵심관계자의 언급을 인용, “민주당에 적을 둔 펠로시 하원 의장은 최근 하워드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에게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안을 성정하지(mark up) 말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 위원장인 셔먼 의원은 지난 3일 공화당 일레이나 로스-레스턴 의원과 공동으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신고서를 제출했음을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증명할 때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일을 늦추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칭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요건 강화법안(H.R.6420)’ 제출했음.
- 美NGO, 北서 첫 ‘영어수업’ 진행(7/24)
  - 미국내 아시아계 싱크탱크인 ‘국제전략화해연구소(ISR)’가 최근 북한에서 미 비정부기구(NGO)자격으로는 처음으로 중·고교생들을 상대로 영어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전영일 ISR 소장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방북팀이 북한 현지에서 중·고교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며 “이번 사업은 북한 당국이 미NGO에 처음으로 허용한 ‘지식교환’ 사업이었다”고 밝혔다.
- 美, 北에 ‘금강산피살’ 남북대화 촉구(7/24)
  - 미국이 지난주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에 금강산피살 사건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도 최근 북한에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권고.
- 北대표단 “박의춘-라이스 상봉 아주 유익했다”(7/24)
  - 북측 대표단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리동일 외무성 군축과장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도를 통해 알겠지만 어제 6자 외무상회담 테두리 안에서 회의를 하면서 여가시간에 박의춘 외무상과 라이스 장관간 상봉이 있었다”면서 “상봉은 아주 유익했다”고 말했다. 리 과장은 또 “이 상봉에서 박의춘 외무상은 현 단계에서 9.19 공동성명 상의 2단계 행동조치를 잘 마무리하는 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 그는 이어 검증체계 문제와 관련, “검증은 우리 하나만 검증하는게 아니라 6자에 대해 모두가 자기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고 감시하는 문제”라면서 “또 이것은 지난 7월 베이징에서의 합의사항을 따른 것으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 만큼 검증 역시 이 원칙에 따라 각자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 美, 北과 양자회담 가능성 시인도 부인도 안해(7/23)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열리는 비공식 북핵 6자 외교장관 회담을 하루 앞둔 22일 미 국무부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별도의 양자회담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음.
- 국무부는 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여부가 오는 8월 10일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음. 곤잘로 갈레고스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라이스 장관이 23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핵 6자 외교장관회담에서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과 백남순 전 북한 외무상이 2002년과 2004년에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이해하기에는 없다”며 “모임의 특별한 사항들에 대해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음.

#### ● FAO “北 식량 최악상황 넘겨”(7/23)

- 북은 미국의 식량지원과 감자, 밀, 보리 등의 수확 덕분에 “최악의 상황”을 넘겼으며 이에 따라 추수 이전 아사자 발생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지역 책임자인 쉐 팡 박사가 말했다.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쉐 팡 박사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 등 외부로부터 식량지원이 없었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도시의 가난한 주민들이 하루에 세끼 먹을 것을 두끼로 줄이는 등 소비를 줄일 수 있지만 아사나 기근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그는 올해 가을의 쌀과 옥수수 작황이 “해마다 겪는 자연재해에 또 다시 영향을 받느냐”가 앞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 ● 美, 북한 핵무기 이어 전자기파무기 위협 우려 제기(7/23)

-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북한과 이란 등의 ‘전자기파(EMP.Electro-Magnetic Pulse) 무기’ 개발 및 미국에 대한 위협 가능성을 거론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22일 확인됐음.
- EMP무기란 핵폭발처럼 폭발시 엄청난 위력의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통신망, 전기 및 전자장비, 컴퓨터 네트워크 등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무기임.



- 미 하원 군사위 산하 'EMP소위원회'는 지난 10일 발간한 EMP보고서에서 미국의 민간 및 군사분야의 주요 국가인프라가 '불량국가'나 테러리스트들의 EMP 위협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EMP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내 주요인프라들이 국가적 재앙수준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음.

● **美, 러시아 별목공출신 탈북자 첫 수용(7/23)**

- 미국에서 2004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러시아에 있던 탈북자의 미국 망명이 허용됐음. 시베리아 별목공 출신의 한동만(42)씨가 러시아를 떠나 2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다고 AP 통신이 서울의 탈북자 지원단체를 인용, 23일 보도했음. 탈북자를 지원하고 있는 두리하나선교회 천기원 목사는 한씨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것이 걱정되지만 미국에서 잘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전했음. 이날 한씨가 입국함으로써 북한인권법 발효 후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는 62명으로 늘어났음.

● **“태국내 탈북자들, 미국행->한국행 선회”<RFA>(7/22)**

- 태국내 탈북자들 가운데 미국행을 위해 장기대기중이던 사람들이 최근 대기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자 남한행으로 마음을 돌리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
- 이 방송은 태국 현지의 인권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 지난 4월 조속한 미국행을 요구하는 단식까지 벌였던 지방이민국 수용시설 탈북자 16명 가운데 5명이 최근 남한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음. 방송은 “최근 미국행을 포기하고, 남한행을 결심한 이들 탈북자들은 길게는 2년 이상 미국행을 기다리며 태국 이민국수용소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음. 태국 이민국수용소와 안가 등에서 미국행을 기다리는 탈북자는 20여명으로 파악된다고 RFA는 전했음.

● **백악관 “북한은 여전히 ‘악의 축’ 일부”(7/22)**

-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핵 폐기로 다가가는) 북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 포기의 반대급부로 제시된 인센티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음.
- 그는 부시 대통령이 두 나라를 여전히 ‘악의 축’으로 여기냐는 질문에 “그들이 핵 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포기할 때까지는 우리는 그들을 (악의 축이라는) 카테고리에 남겨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 **美대북인권특사, 개성공단 방문 신청 취소(7/21)**

-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대북 인권특사가 개성공단 방문 계획을 취소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정부 소식통이 21일 전했음. 이 소식통은 “미측으로부터 레프코위츠 특사의 방북 계획을 취소한다는 연락이



왔다”면서 “8월 조지 부시 대통령의 방한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레프코위츠 특사는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환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북핵 6자회담을 북한의 인권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인권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해 왔음.

#### 다. 중·북 관계

##### ● <올림픽> “北응원단 28일 입국”(7/27)

- 중국의 복수 대북소식통들은 27일 “북한 올림픽응원단이 28일 선양(瀋陽)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는 응원단 규모는 180명에서 200명 사이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응원단은 평양에서 국제열차를 타고 선양으로 들어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중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 응원단은 일단 선양에 도착해 본격적인 응원 준비에 돌입하게 되며, 올림픽 기간 북한팀 경기가 있는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선양 등지를 돌며 현지 북한인들이 합류한 가운데 대대적인 응원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 ● “北-中, 올림픽 전후 북한인 일시귀국 합의”(7/23)

- 중국의 복수 대북소식통은 23일 “이달초부터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귀국하는 북한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북중 양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체류기간이 끝나는 북한인을 일시 귀국시키고 올림픽 이후 입국을 재개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 베이징(北京)의 한 대북소식통은 “현재 본국으로 돌아가는 북한인도 늘고 있지만 북한 당국에서도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출국하는 것도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일시귀국 대상은 북중 양국이 체결한 출입국 관련협정에 따라 비자면제되는 공무여행여권 소지자 중에서 중국 정부에서 거류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인과 변경지역 통행증을 발급받아 중국에 들어온 북한인들이 주로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음.

##### ● 중국에서 공부하는 북한 유학생 877명(7/22)

- 지난해 말 현재 중국 대학 등에서 공부하고 있는 북한 유학생은 87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음. 중국 교육부는 22일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이 접수한 북한 유학생은 장기 유학생 703명, 단기 유학생 174명 등 모두 877명이라고 밝혔다.

##### ● “올림픽 기간 北-中 접경 교량 모두 폐쇄”(7/21)

-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은 21일 “중국이 자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인들에 대해 중국을 떠날 것을 요청한데 이어 북한과의 접경



교량도 잠정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 교량을 폐쇄하는 이유는 탈북자나 북한의 망명 희망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보안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 소식통들은 또 “이번 올림픽 기간에 베이징을 방문할 북한 응원단의 규모는 고정 응원단 140여명과 미녀응원단 300명 등 모두 440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의 응원단은 북한이 메달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여자축구 시합에 집중 배치될 것으로 보이며 여자유도 등의 종목에도 응원단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라. 일·북 관계

##### ● 北역사학자 “日 독도 생트집 용납 안돼”(7/27)

-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의 리광희 박사는 북한 주간지 통일신보 최근호(7.26)에서 “제 땅도 아닌 독도를 내놓으라고 생트집을 거는 일본의 침략 망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했음.
- 27일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리 박사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영토 강탈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행위이고 파렴치한 역사왜곡 행위, 횡포무도한 영토침략 행위”라고 말했다.
- 그는 또 “김일성종합대학에도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고증해주는 조선지도를 비롯한 옛문헌들이 수많이 보존돼 있다”면서 “거기에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표현이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 ● “ARF성명 금강산 사건 삭제는 北요청 때문”<교도통신>(7/26)

- 지난 24일 발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의장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의 조기해결을 촉구하는 기술이 다음날 삭제된 것은 북한이 강력히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이 26일 ARF 참가국 소식통을 인용, 보도.
- 이 소식통에 따르면, ARF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북한이 아세안의 기본 조약인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에 서명한 점을 중시,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한국이 요구한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언급과 일본의 의사를 반영한 납치문제를 시사하는 ‘인도적인 우려’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성명안(案)을 참가국에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의장 권한으로 금강산 사건에 대한 언급과 인도적인 우려라는 문구를 성명에 포함시켰음.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북한이 요구한 10.4 남북정상선언에 입각한 남북대화 진전을 지지하는 문구도 삭제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 日, 납치문제 진전없이 속만 태워(7/24)

- 일본 정부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발효되는 오는 8월 13일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이용, 미국 등 관계국과의 연대를 통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 진전을 끌어낸다는 구상이었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그런 가운데 2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비공식 6자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일말의 기대를 했으나 북한측의 “북일 양자간 문제로 양자간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논리에 묻혀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일 현안 해결, 관계 증진 합의” <日외무장관>(7/23)

-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마사히코 고무라 일본 외무장관은 23일 남북자 문제 등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관계를 증진하기로 합의했음.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중인 박 외무상과 고무라 장관은 이날 비공식 북핵 6자회담 장관회담에 참석한 뒤 회의 장소를 떠나면서 잠시 조우, 이같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고무라 장관이 기자들에게 밝혔음.
- 고무라 장관은 “내가 막 회의장소를 떠나려고 할 때 박 외무상이 나에게 ‘북일간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북일 유대관계를 증진하자’고 말했고, 나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음.

● 北신문 “日MD, 동북아 안보 파열구”(7/23)

-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3일 일본의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 노력을 “선제공격용”이라고 비난하면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또 다시 되살아난 미사일 광증’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자위대의 9월 중순 패트리엇 3(PAC-3) 미사일 시험발사 계획을 지적, “일본은 안보상 위협을 느껴서가 아니라 선제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미사일 방위체계수립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조선은 “일본은 전략적 요충지에서 군사전략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미국의 미사일 방위체계 수립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군사대국화 실현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오늘날 일본의 군사력은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일본은 독자적으로도 해외에서의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지적했다.
- 이 신문은 “이제 일본의 손에 완성된 미사일 방패가 쥐어지는 경우 일본의 선제공격 능력은 기본적으로 완성되게 된다”며 “이것은 일본 반동들의 군사대국화, 재침 책동이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고 현실적 위협을 피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 北노동신문 “日 독도 책동 불용”(7/21)

- 북한의 노동신문은 21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한 것을 “조선 재침 야망”이라고 비난하면서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이날 ‘영토 팽창 광대극을 견어치우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인들 속에 독도지배 사상을 고취해 영토 팽창의 길로 이끌어 가려는 군국주의 부활 책동”이라며 “독도가 저들의 영토라고 우겨댄다고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가 일본 영토로는 절대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 신문은 “일본은 패망 후 일본의 모든 권리,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공약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했다”며 “이것은 일본이 독도가 저들의 섬이 아니라는 것을 국제사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 기타

● 英강사 “北대학 영어교수 실력 편차 커”(7/26)

- 북한 대학 영어교수들의 실력이 초급에서 중상급까지 편차가 크다고 평양 김형직사범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국인 강사가 전했다.
- 2006년 9월부터 영국문화원의 대북 영어강사 파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니컬러스씨는 26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김형직사범대학 영문학부 강사와 교수들은 영어회화 중급 수준, 학부생은 중하급이나 초급”이고 “평양 이외 지역에서 사범대로 수업을 받으러 오는 지방(사범대학) 영어교수들은 초급에서 중상급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문화원이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을 활용해 대학생과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두 달 코스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며 학생을 위한 강의는 90분 수업 45차례, 교수는 43차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 학생들의 학습태도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고 순종적이며 예의 바르다”고 평하면서 “학교에서 북한 교수들과 함께 일하지만 방과 후 같이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 “英, 한국 국적 탈북자 추방 방침”<RFA>(7/25)

- 영국 정부는 탈북자라며 망명신청한 사람들 중 한국 정부에 대한 지문 조회 결과 이미 한국에 정착했던 사실이 밝혀진 사람들의 경우 모두 추방할 방침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5일 보도. 이 방송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 산하 국경청(UK Border Agency)측은 “영국에 난민지위 신청을 한 탈북자중 한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에서 직접 영국에 온 탈북자인 것처럼 위장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다”며 “그 파악한 내용이 사실인지 보다 정확히 가리기 위해 한국정부에 관련자들의 지문조회를 의뢰했다”고 설명.



- 이 방송은 “영국 정부는 한국 정부로부터 지문조회 정보를 넘겨받아 위장 망명자가 밝혀질 경우 강제추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에는 지금까지 모두 850여명의 ‘탈북자’가 입국해 난민지위를 이미 취득했거나, 신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는 전했다.

### ● “北, 내년 몽골에 건설노동자 파견” <RFA> (7/23)

- 북한이 몽골 정부와 체결한 ‘노동자 파견 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건설 노동자를 파견할 것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전했다.
- 이 방송은 몽골 언론보도를 인용, “몽골 의회는 지난 20일 북한과 몽골간에 체결한 노동자 파견에 관한 기본 협정을 승인했고, 몽골 사회 복지노동부는 빠른 시일안에 북한 노동자들의 고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 몽골 외교통상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몽골 정부는 북한 노동자들의 고용 규모와 이들의 노동력이 필요한 노동 현장, 그리고 최저 임금 등 노동 조건과 복지문제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몽골 언론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 파악을 위해 이들의 고용을 원하는 회사들은 7월 23일까지 당국에 고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보도함으로써 북한 노동자들의 몽골 파견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고 RFA는 전했다.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美상무 “한미FTA 경기부양에 큰 혜택..반드시 통과시켜야”(7/25)

- 칼로스 쿠티에레즈 미 상무장관은 24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의회가 FTA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쿠티에레즈 장관은 이날 미국 가전제품업협회(CEA)가 워싱턴 소재 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미디어 홍보 행사에 참석해 “의회가 현재 경기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FTA야말로 미국 경제에 정말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쿠티에레즈 장관은 “미국은 FTA를 체결한 11개국과 교역에서 38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FTA의 효과를 설명하고 중국과 유럽연합과 같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다른 나라와 FTA 체결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계류중인 FTA 비준을 늦추면 늦출수록 대외 경쟁력이 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는 “한미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가장 크고 포괄적인 FTA”라고 강조하고 “의회가 올해 안에 비



준동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늦추기에는 한미FTA는 너무 중요한 협정”이라고 말했다.

## 나. 한·중 관계

### ● 中대사 “금강산 사태 걱정..적극 도울 것”(7/23)

-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는 23일 금강산 피격 사건과 관련, “중국도 이번 사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중국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닝 대사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박희태 대표를 예방, 중국의 역할과 협조를 강조한 박 대표의 당부에 “한국은 중국의 이웃 나라로, 중국은 남북관계의 경색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윤상현 대변인이 전했다.

### ● 中외교부장 “금강산사건, 남북 대화로 해결 희망”(7/23)

-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은 23일 금강산 피살사건과 관련, “불행한 사건으로 남북한 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양 부장은 이날 싱가포르 상그릴라호텔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금강산 피살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고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한데 대해 이 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전했다.
- 두 장관은 또 지난 5월 설정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외교, 안보, 경제, 통상 등 제반 분야의 협력강화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음.
- 양측은 아울러 다음달 이명박 대통령의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 및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답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협력하는 한편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음.

### ● 中대사 “금강산 사태 걱정..적극 도울 것”(7/23)

-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는 23일 금강산 피격 사건과 관련, “중국도 이번 사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중국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닝 대사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박희태 대표를 예방, 중국의 역할과 협조를 강조한 박 대표의 당부에 “한국은 중국의 이웃 나라로, 중국은 남북관계의 경색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윤상현 대변인이 전했다.
- 닝 대사는 “지금까지 지속된 남북교류 협력은 양측 이익에 다 부합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 민족화해 통일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 아세안+3 장관회의 개최...‘금강산사건’ 제기(7/22)

-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가 22일 오후 3시(한국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막, 역내 정세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아세안+3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지난 정상회의때 채택된 ‘제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과 ‘사업계획’의 이행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세안+3 회원국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은 이어 이날 오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식량과 에너지 안보, 국제금융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했음.

## 다. 한·일 관계

### ● 日 대학교수, 일본정부에 독도 기술 삭제 촉구(7/24)

- 도쿄학예대의 기미지마 가즈히코(君島和彦·64) 교수(동아시아근현대사)는 24일 아사히(朝日)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엔 불거진 독도 문제가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를 교육의 장으로 밀어붙인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해법을 내놓았음.
- 그는 “도카이 기사부로(渡海紀三郎) 문부과학상과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이 한국 정부에 ‘어른스런 관계’를 촉구하고 있으나 ‘어른스런 관계’는 해설서 공표 이전에 대처했어야 하는 것으로, 공표 후에는 일본측 주장을 인정하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일 뿐 이런 식으로는 ‘미래지향의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비판했음.
- 진보성향의 지한(知韓)파인 기미지마 교수는 이어 일본 정부가 해설서의 표현을 통해 한국측을 배려했다고 하지만 마치무라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답변처럼 학교에서 일본 고유 영토로 교육하고 교과서 검정이 통과된다면 해설서가 과연 한국측을 배려한 것이냐고 반문했음.
- 그는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셔틀외교, 6자회담에서의 협력 관계, 나아가서는 ‘미래지향의 관계’와 ‘어른스런 관계’를 중시한다면 먼저 해설서를 개정해 이전과 같이 독도에 관한 기술이 없던 단계로 되돌아가 대화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 ● “독도문제로 韓日 교류행사 취소 속출” <교도통신>(7/23)

- 23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미야기(宮城)현 리후(利府)읍은 국제 교류협회 주최로 관내 여고생 3명을 다음달 초 한국 의정부시에 홈스테이를 위해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의정부시측으로부터 최근 독도 문제를 이유로 중지를 통보받았음.
- 또 같은 미야기현 오자키(大崎)시의 시키타마(敷玉)초등학교는 오는 26일부터 한국내 자매결연 학교의 초등학교생 16명을 받아들여 실시할 예정이던 홈스테이 행사를 취소했다. 시키타마 초등학교에서는 행사



를 위해 환영회 등의 준비를 진행해 왔으나 한국측의 중단 통보로 많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기후(岐阜)현의 가카미가하라(各務原)시는 다음달 춘천시와 중학생을 상호 교류하는 홈스테이를 예정했으나 22일 춘천시로부터 “지금과 같은 시기에 가는 것은 현명하지않다”며 행사의 중지를 통보하는 서한을 받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 ● “日 ‘교과서 독도 명기’는 침략행위”(7/23)

- 7대 종단을 비롯해 시민단체연합체인 ‘국토수호범국민운동협의회’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천도교 대강당에서 ‘국토수호범국민 궐기대회’를 열고 “일본이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한 것은 침략행위”라고 비난했음.
- 이들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한 일종의 선전포고이자 일본이 여전히 군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음을 국제사회에 여실히 드러낸 셈”이라며 “정부는 대일 외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환경운동연합과 문화연대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제국주의적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정부도 파괴적 독도 개발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이들은 “정부의 독도유인화 정책이나 해양호텔건립 계획 등은 독도 환경의 보호 필요성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와 같은 방법을 통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양평군, 日 여름축제 참가 취소(7/22)

- 경기도 양평군은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일본 시즈오카현 오마에자키시의 미나토 여름축제 참가 계획을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선교 양평군수 등 군 대표단 4명은 다음달 2일 2박3일 일정으로 여름축제에 참가할 예정이었음.
- 양평군은 “지난달 19일 오마에자키시 시장이 양평군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선진농업 및 관광분야 교류와 청소년 홈스테이 등을 희망하며 방문해 답방 형식으로 축제를 둘러볼 계획이었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교류 사업 계획을 전면 취소기로 했다”고 말했다.

#### ● 日관방, 독도 軍주둔안에 냉정한 대응 촉구(7/22)

- 일본의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22일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독도에 군을 주둔시키는 한국의 방안에 대해 “군사적인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은 일한 양국의 우호관계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냉정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NHK방송이 보도



- 마치무라 장관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일본이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것과 관련, 21일 한국 국회 질의응답에서 이상희 국방장관이 독도에 군을 주둔시키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 ● 수원시 “8-19년된 일본 교류·협력 전면 중단”(7/22)

- 경기도 수원시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전면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18일 자매결연 및 우호협약체결 도시인 일본 아사히카와(旭川)시와 후쿠이(福井)시 등에 시장 명의의 서한을 보내 유감의 뜻을 표시한 데 이어 7~8월 예정됐던 청소년 및 공무원 교류사업을 모두 중단했거나 중단할 계획임.
- 이에 따라 28일 수원외고생 10명의 아사히카와시 전통문화 체험 방문과 31일 중·고교생 10명의 후쿠이시 주니어 대사 파견, 다음달 후쿠야마시 생태조사, 구레시 조선통신사 재현행사에 취타대 파견, 오츠시 요트캠프 등 학생 교류사업이 줄줄이 취소됐음. 또 다음달 1일 유후인시 학생들의 수원 방문 일정도 보류됐음.

#### ● “독도와 댜오위다오는 다르다” <中전문가>(7/21)

- 독도와 동중국해 상의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모두 미국의 정책 때문에 발생했지만 그 성격은 서로 다르다는 주장이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음.
- 중국 푸단(復旦)대학 한국연구센터의 잔더빈(詹德斌)연구원은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 21일자에 기고한 칼럼에서 독도에 대한 한·일 간의 영유권 분쟁은 미국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음.
- 다음은 잔더빈 연구원의 기고문을 간추린 것.  
『미국은 1947년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서 일본이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의 부속도서를 포기한다고 명기했고, 미군은 한국 정부 수립 후 독도를 한국에 돌려줬으나 이후 미국은 독도에 대한 태도를 애매하게 바꿨다.  
반면 미국은 2차대전 이후 1971년까지 점령해오던 댜오위다오를 이해 6월 일본에 돌려줬다. 이는 당시 적대국이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이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일본에게 준 것은 정치·군사상의 전략과 함께 이 도서 부근의 해역에 풍부하게 매장돼있는 해저 광물자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과 중·일간의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에 대하는 미국의 태도도 이중적이다.



미국은 독도 문제에 대해선 철저히 중립적이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동맹국으로 국제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어느 한 국가 편을 들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댜오위다오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다르다. 중·일 영유권 분쟁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본을 편향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댜오위다오 부근 해역을 비롯한 태평양 상에서 수시로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편을 실질적으로 들고 있는 것이다.』

### ● 여수시의회, 일본 독도침탈 규탄성명 채택(7/21)

- 전남 여수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침탈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음. 수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역사적, 국제법상, 지리적 사실에서도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신제국주의적 책동과 만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본은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과 정책을 포기하고 독도가 분명한 대한민국 땅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음.
- 여수시의회는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외교적 조치는 물론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여수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감내하고라도 기필코 끝까지 우리땅 독도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 한중일 3국, 아세안 지원기금 창설(7/21)

- 한국과 일본, 중국 3국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정보기술(IT)망 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1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2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과 한중일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합의를 거쳐 설립되는 이 기금의 규모는 3억엔(약 30억원) 정도로 출발, 아세안측이 1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중일 3국이 균등 분담하게 됨. 기금의 설립 취지는 한중일 3국과 아세안 간의 관계 강화에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 전주시, 日 가나자와시에 ‘교류 중단’ 통보(7/21)

- 전주시는 “가나자와 시의 상징물인 ‘젠로쿠엔’ 석등 설치 계획과 8월 말로 예정된 가나자와 시의원 초청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시민의 여론이 좋지 않아 당분간 가나자와 시와의 문화·행정 교류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추후 양국 관계가 정상화 하면 교류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우리 어선 올해만 日에 14척 끌려가(7/21)**
  - 일본의 교과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 사태로 한일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일 어업협정 위반을 이유로 끌고간 우리 어선이 올해 들어서만 14척에 달해 ‘과잉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어업협정 이후 상대국 배 日 198척, 韓 15척 나포**
  -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우리 어선 14척이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등에 나포돼 일본까지 끌려갔다 2~3일 뒤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인 11척의 나포 이유는 조업 조건 및 규칙 위반이었음.
- **우리 어선 日 수역내 조업 활발**
  - 일본의 한국 어선 나포가 월등히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우리 어선의 동해·남해상 조업이 일본 어선보다 활발하기 때문임.
  - 대게잡이 배를 비롯한 우리 근해 어선들은 동해 최고의 ‘황금어장’ 대화퇴(大和堆; 동경 134~136도) 지역을 포함한 ‘중간수역’과 일본 EEZ내 먼 바다까지 적극적으로 진출하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EEZ나 ‘중간수역’에서의 조업이 많지 않음.
- **日 실수로 양국 경비정 대치까지..과잉단속 논란**
  - 정부의 한 관계자는 “동해 등에서 우리 어선 활동이 워낙 활발하다보니 일본 어업인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일본 정부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 우리 어선에 대해 간간하게 단속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음.

#### 라. 미·러 관계

- **“러, 美 MD 맞서 쿠바 첩보시설 재가동해야” <러 전문가>(7/24)**
  - 러시아가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MD)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미 폐쇄된 쿠바내 러시아 첩보시설을 재가동해야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음.
  - 러시아과학원 산하 세계경제·국제관계 연구소의 알렉산드 피카예프 군축 분과위원장은 23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사옥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음.
  - 피카예프 위원장은 특히 “쿠바는 미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미국이 러시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쿠바의 루르데스 첩보 시설을 재가동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실제로 노턴 슈워츠 공군참모총장 지명자는 23일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쿠바에 전략 폭격기를 띄운다면 그것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러, 美 MD 맞서 쿠바에 폭격기 배치가능” <러 언론> (7/21)
  - 러시아가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MD) 계획에 맞서 미국의 턱 밑인 쿠바에 전략 폭격기를 배치할 수도 있다고 일간 이즈베스티야가 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
  - 이 관계자는 “미국이 폴란드와 체코에 MD 시설을 배치하는 동안 우리의 전략 폭격기들은 이미 쿠바에 도착해 있을 것”이라면서 “폭격기 배치가 단지 가정일 수도 있지만 그 같은 얘기가 결코 느닷없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러시아는 구 소련 붕괴 이후 중단됐은 전략폭격기들의 정찰 비행을 지난해 8월부터 재개했음. Tu-160, Tu-95 등 러시아 전략 폭격기들은 미국 본토를 직접 폭격할 수 있는 장거리 항속능력을 갖고 있음.
  - 러시아 전략 폭격기의 쿠바 배치설은 러시아가 서유럽을 겨냥해 핵무기를 배치할 수도 있다는 러시아 언론의 최근 보도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관측통들은 말했다.

#### 마. 중·일 관계

- 日-中, ‘전략적 호혜관계’ 순항(7/21)
  - 21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중 양국 정부는 민관의 중견간부급 교류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제1탄으로 대지진 피해 지역인 쓰촨(四川)성 간부를 일본으로 초청, 고베(神戸), 니가타(新潟) 등지의 재해대책을 연구토록 할 계획임.
  -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총무회장이 이달 초순 베이징(北京)을 방문, 다이빙귀(戴秉國) 국무위원, 양제츠 외교부장 등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은 교류사업 개시에 기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민관 교류사업은 30~50세의 정치가와 공무원, 경영자, 문화예술인 등의 상호 방문과 대화를 통한 양국간 연대를 강화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나 환경·에너지, 농업 등 폭넓은 분야에서 연수회나 의견 교환 회 등의 형식으로 교류를 촉진해나간다는 방침임.

#### 바. 중·러 관계

- <올림픽> 중-러 보안협력 강화(7/25)
  - 중국과 러시아가 베이징올림픽 기간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와 러시아간의 국경 보안검색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러시아제 장갑차가 베이징 시내에 배치되는 등 양국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음. 네이멍구자치주 당국은 최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만저우리(滿洲里)시 항구에 대한 검문검색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다고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음.



- 만저우리의 중-러 양측 검문소 간부들은 낮에는 하루 20분, 밤에는 40분씩 만나 보안검색에 대한 협의를 하고 수시로 핫라인을 가동키로 했음. 만저우리는 중-러 국경간에 최대의 내륙 항구이며 양국간 내륙 교역량의 60%가 이곳 기차역을 통해 운송됨.
- 한편 베이징에는 올림픽 기간 테러방지 및 보안 강화를 위해 러시아의 최신 장갑차량 10대가 일선 파출소에 배치됐음. 현재 러시아의 군수 공장에서 15대가 운송 준비를 하고 있으며 35대는 중국 전문가의 검사를 받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올 연말까지 장갑차 100대를 도입한 내용의 구매계약을 체결했음.

### ● 후진타오 “러시아는 중국 외교의 우선순위”(7/22)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21일 베이징을 방문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하고 중국은 러시아를 외교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이 보도.
- 후 주석은 라브로프 장관이 이날 양제츠 외교부장과 중-러 국경 분쟁에 중지부를 찍는 협정에 서명하는데 대해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로 그를 인민대회당으로 불러 면담했음.
- 후 주석은 러시아가 대만 문제, 티베트문제, 베이징올림픽 등 여러 사안에서 중국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중-러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음.

### 사. 기타

#### ● 제주도 “한-아랍 소사이어티재단 참여”(7/25)

- 제주도는 한국과 아랍의 정부 및 왕실, 기업, 단체가 참여해 투자유치와 협력사업을 전개하는 이 재단에 참여해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진으로 활동하기로 했음.
- 이달 말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내달 하순 서울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는 이 재단은 한국측에서 외교통상부와 제주도, 한국교류재단, SK, GS칼텍스, S-oil, 금호아시아나, 두산중공업, 현대해상, 한진 등 17개 회원이 참여함.
- 아랍측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수단,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알제리, 이라크 등 17개 회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측에서 10명씩 이사직을 맡음.

#### ● “美, 1977년 독도 대신 ‘리앙쿠르암’ 지명 채택”(7/25)

- 미국 지명위원회(BGN)는 24일 미국 정부가 지난 1977년 7월14일 ‘독도’라는 이름 대신에 ‘리앙쿠르 암(岩 ; Liancourt Rocks)’이라는 지명을 공식 사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BGN은 이날 한국 특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국립지질정보국(NGIA)에서 일하는





● **멕시코서 한국인 5명 피랍…몸값요구(7/22)**

- 멕시코 북부의 한 국경도시에서 한국인 5명이 납치됐음. 납치세력은 몸값을 요구하고 있으며 외교 당국은 이들이 금품을 노린 단순 납치범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2일 “지난 14일 미국 텍사스주와 인접한 멕시코 북부 국경 근처 레이노사 시(市)에서 한국인 5명이 납치됐다”며 “멕시코대사관에서 통화를 통해 이들의 생존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이 당국자는 “피랍사실은 피랍자 중 1명이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3~4일 전 확인됐다”고 말했음.

● **유네스코총장 “문화다양성 활성화로 갈등풀어야”(7/22)**

- 마츠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은 22일 전세계적으로 교육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한층 활성화시킴으로써 사회·국가적 갈등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했음.
- 외교통상부 초청으로 방한한 마츠우라 사무총장은 이날 낮 12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이 주최한 포럼에서 행한 ‘문화의 다양성과 유네스코’ 제하의 연설에서 “국가간 교류 원칙 등에서 어느 정도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음.
- 마츠우라 사무총장은 그러나 강연 후 ‘독도’ 및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나는 유네스코 대표이지 일본정부 대표가 아니고, 또 대변인 역할을 할 입장도 아니다”며 말을 아꼈음. 그는 일본 외무성의 지원정책국장과 북미관계국장, 차관, 주 프랑스 대사 등을 역임한 뒤 1999년부터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재임 중임.

● **柳외교, 나단 싱가포르 대통령 등 예방(7/22)**

-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싱가포르의 고촉동 선임장관과 리셴롱 총리, 나단 대통령을 잇따라 예방하고 금강산 피격사건을 비롯한 남북관계 등을 주제로 의견교환했음.
- 유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고위 인사들을 연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핵 6자회담 진전상황과 함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금강산 피살 사건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고 예방에 배석한 이경수 외교부 남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전했다. 이 국장은 “싱가포르 인사들은 우리 측 설명에 대해 경청을 하고 이해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예방에서 또 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도입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음.